

제 5 회 전국지방연극제 최우수상 수상 기념공연

# 노인, 새되어 낳다



 극단 예술극장 제 27 회 특별공연

1987.6.26→28 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극단「예술극장」
- 후원 / 한국예술총연합회 부산지회 · 부산상공회의소



#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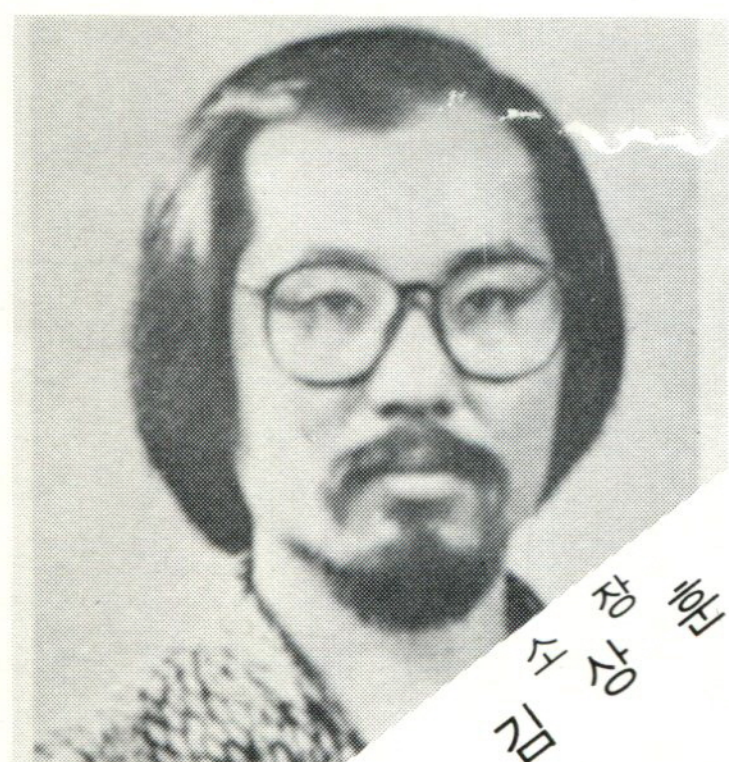
이원호  
권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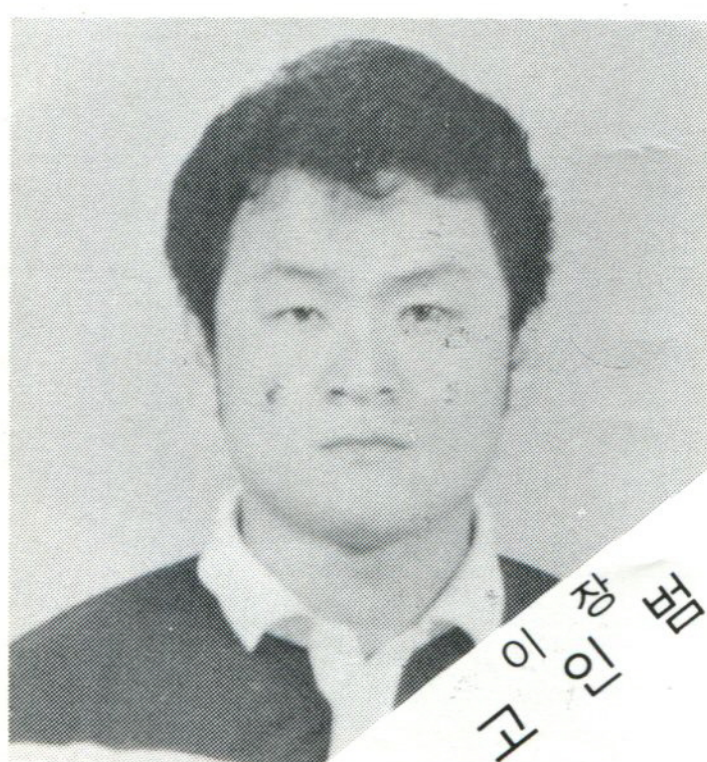
유안노  
안노인



정구평  
구평택



김수환  
정수환



고인보  
정인보



이선철  
정선철



김아미  
정아미



김아연  
정아연



정아숙  
정아숙



이혜영  
김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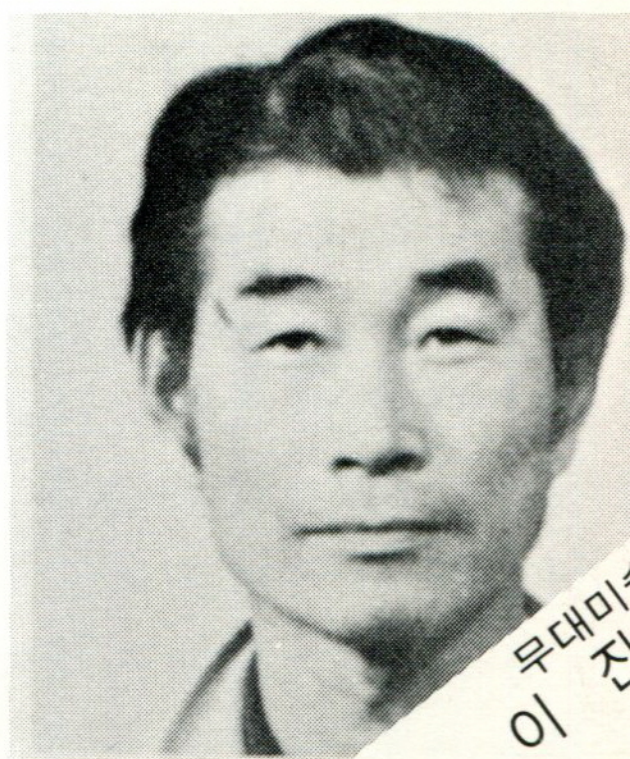
# STAFF



작가  
신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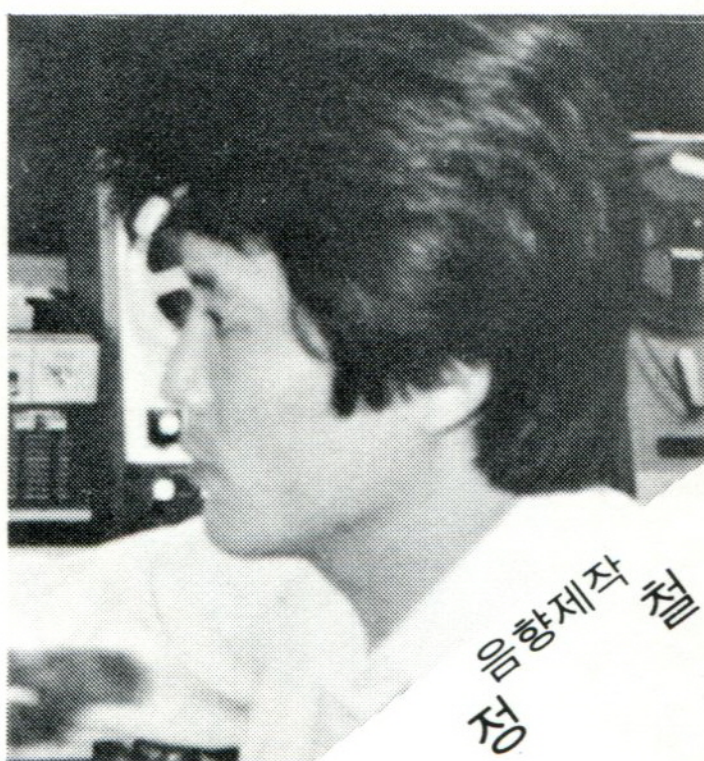
무대감독  
김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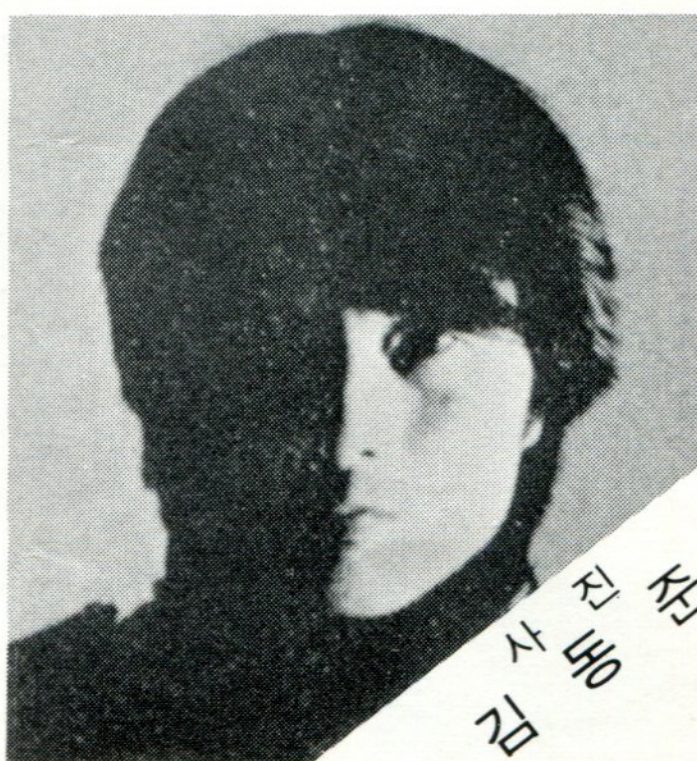
무대감독  
김인연



감독  
김명환



제작  
정승환



진행  
김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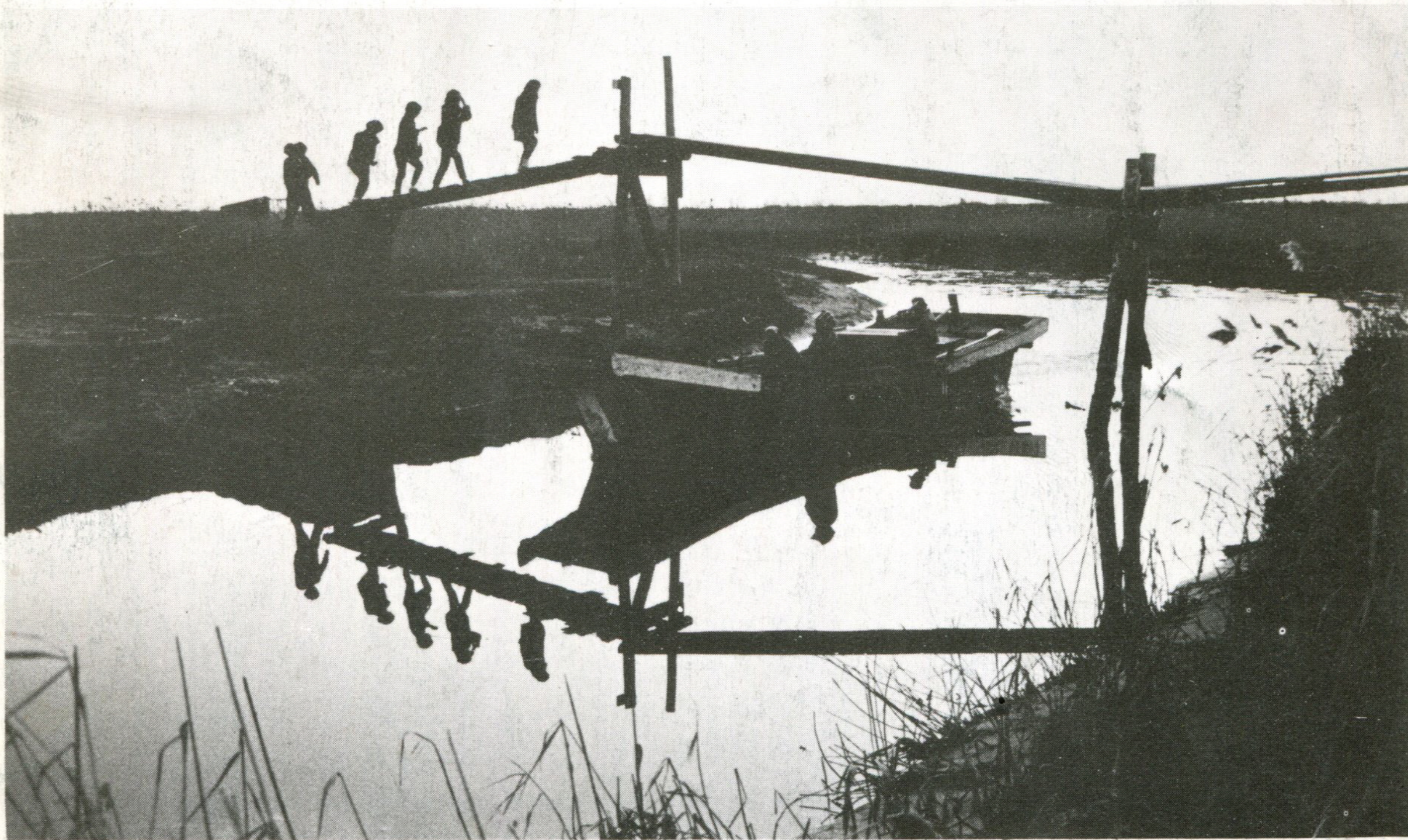
## □ 작품해설

「노인, 새 되어 날다」는 작년에 공연되었던 「을숙도」를 기초로 하여 다시 만들어진 작품이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정신휴양지이며,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을숙도」. 온갖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 만든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을숙도에서 40여년을 살아온 토박이인 「권노인」. 그는 철마다 찾아오는 철새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왔고, 갈대밭 억센 뿌리와 싸우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훈훈한 인정을 지닌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있고 딸과 함께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날, 하구언 공사가 시작되고 정착민들은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등짝이 휘도록 피땀흘려 개간한 정든 땅을 떠나야만 한다. 그 와중에 떠나살던 아들 내외가 나타나 보상금마저 가로채려 하고 권노인은 끝까지 투쟁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히려 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을숙도, 조금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정리되고 개간되어 옛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과연 여러 학자들의 엇갈린 주장대로 될 것인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맞닥드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작품은 한인간의 땅과 자연에 대한 굳센 보호의지를 통해 현대인들이 지향해야할 바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 노인, 새되어 나다

제 5 회 부산연극제 참가작  극단 **연극극장** 제23회 정기공연



**1987. 3. 24-26**

**시민회관 소극장**

- 주최 / 부산직할시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후원 / 한국문예진흥원 · 부산시교육위원회  
부산일보사 · 부산문화방송 · KBS부산방송본부





### 작품을 만들기 까지

신 태 범

이 작품은 극단 예술극장이 지난 '86년 제 4회 부산시 연극제에 출품한 작품 〈을숙도〉를 뼈대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을숙도〉는 당시의 연극제 프로그램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연출자 이영식씨가 기둥줄거리를 구상하고 초안하였으며, 작가 박 원돈씨가 마지막 손질과 마무리를 맡아 정리했던 작품이었다. 그리고 연습 과정에서 희곡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내가 받아서 다시 전후반부를 대폭 고치고 첨삭하여 공연하였다. 결과적으로 나까지 합쳐 세 사람의 공동작품이 된 셈이었다.

연극제가 끝난 후 〈을숙도〉는, 우리 연극사상 아마도 처음일 것으로 생각되는 낙선 기념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을숙도〉를 주의 깊게 보신 많은 분들이, 〈향토연극의 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작품〉으로 격려를 보내 주셨다.

그때의 〈을숙도〉를 '87년 제 5회 부산연극제에 다시 내놓겠다고 개작을 요청해 왔을 때, 조금 난감한 기분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시간 나는데로 〈을숙도〉를 총체극 형식으로 전폭 다시 써 봤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쫓기면서 다시 개작하기에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나는 감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을숙도〉에 대해 나대로 가지고 있던 아쉬움과 애정 때문이었다. 결국 한 구석의 불만을 누르면서, 작품을 다시 쓰는 기분으로 전면적인 개작에 착수하였다. 제목도 아주 바꾸기로 하였다.

이상이 〈노인, 새 되어 날다〉가 탄생한 내력의 전부이다.

그러나 역시 그 기둥줄거리는 〈을숙도〉에 기대고 있고, 내용도 상당 부분 〈을숙도〉에서 빌어쓰고 있어, 이 작품은 결국 나를 비롯한 이 영식, 박 원돈 세 사람의 공동창작품이라고 함이 옳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편의상 내 개인의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세 사람이 합의하였음을 나는 그저 고맙게 생각할 따름이다. 이것으로 내가 지게되는 빛은 또 다른 극형식으로 새 작품을 창출하는 것으로 갚을 생각이다.



### 연출의 말

김 경 화

노인, 새 되어 날다는 희망의 연극이다. 역설로 들릴 지도 모르지만 작품의 외형적인 구조로 보면 을숙도의 자연 파괴 현상, 혹은 하구언 공사로 인해 밀려 나야 하는 정착민들의 애환, 비련 등으로 해서 비극적 연극으로 해석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외재울 속에 잠재한 끈끈한 생명력, 혹은 갈대 뿌리와도 비교되는 강인한 생활력 등의 밑받침으로 인해서 역동적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가진 인물들의 밝은 얘기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파괴로 인해 비록 소외감을 갖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복원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분명 희망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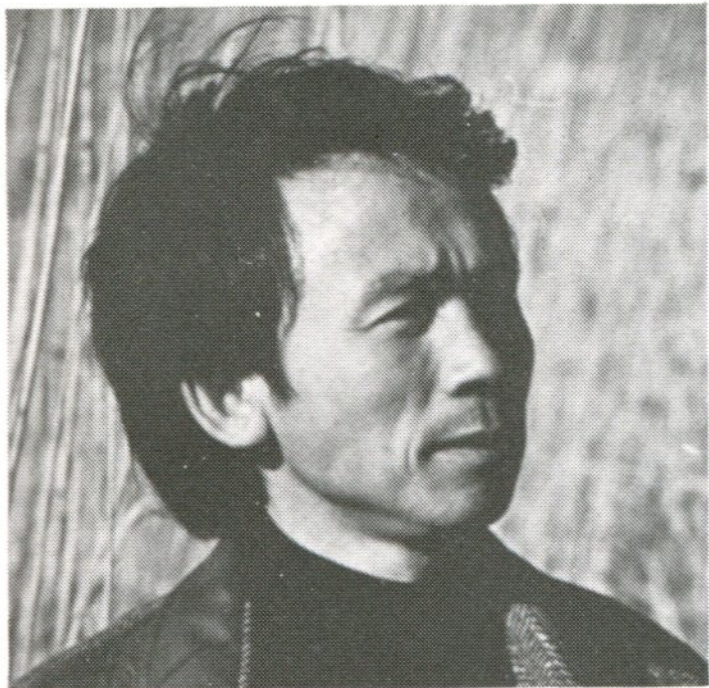
을숙도의 주민들을 소재로 한 이 연극이 결코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술한 사람들의 고뇌가 담기고 그들의 어두운 생활 얘기로 점철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들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깔린 희망의 에너지는 분명히 분수처럼 뿜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분명 자연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 한편의 연극으로 인해 자연과 인간은 상호공존해야 한다는 명쾌하고도 깊은 철학을 터득하고 싶다.

수고한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을숙도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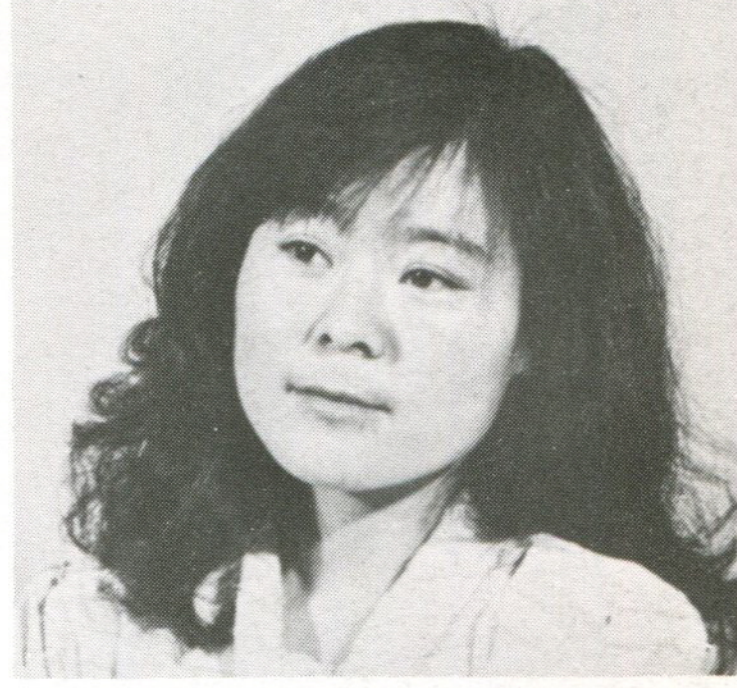




권노인 • 이 영 식



안노인 • 유 순



구포덕 • 정 행 심

## CAST

###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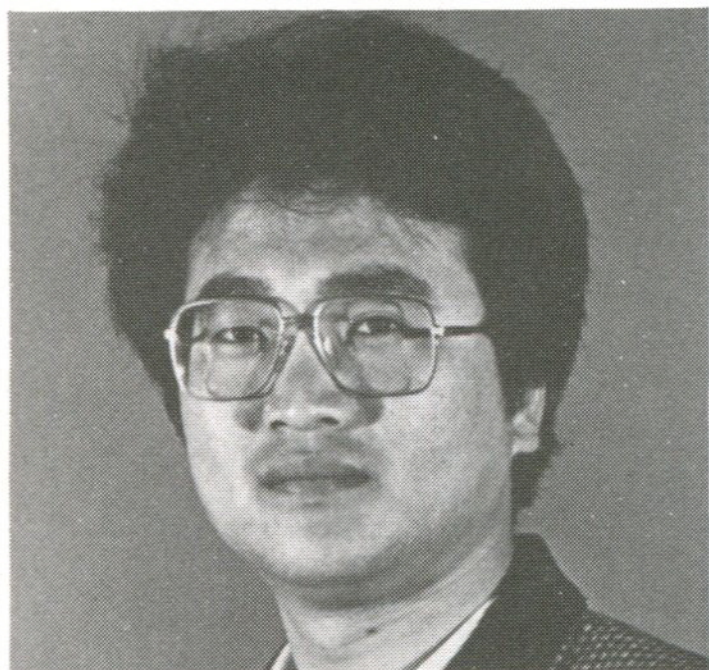
권노인은 을숙도에서 40년을 살아 온 토박이이다. 그는 철따라 찾아오는 철새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 갈대밭, 억센 뿌리와 싸우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안노인과 구포덕과 같은 훈훈한 인정을 지닌 친구들이 있다. 그는 자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느날 하구연 공사가 시작되고 정착민들은 적당한(?) 보상금을 받고 등짝이 휘도록 피땀흘려 개간한 정든 땅을 떠나야만 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철새도래지 낙동강 하구, 을숙도, 조금 있으면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정리되고 개간되어 옛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과연 학자들의 엇갈린 주장대로 될런지?

자연의 힘과 인간의 힘이 맞닥드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작품은 한 인간의 땅과 자연에 대한 굳센 보호의지를 통해 현대인들이 지향해야 할 바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소 장 • 박 희 철



이 장 • 김 익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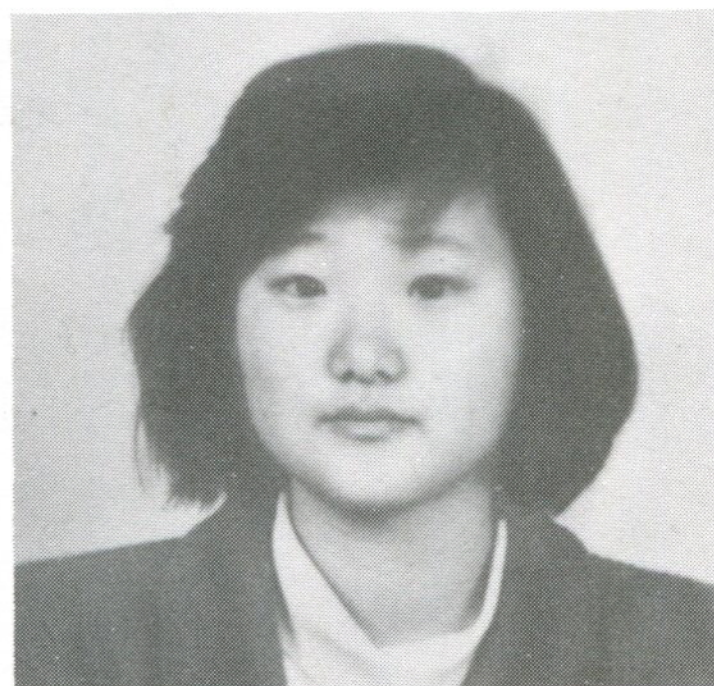
봉 섭 • 권 철



아 내 • 김 지 영



옥 이 • 김 경 림



김해덕 • 이 혜 영



경 아 • 하 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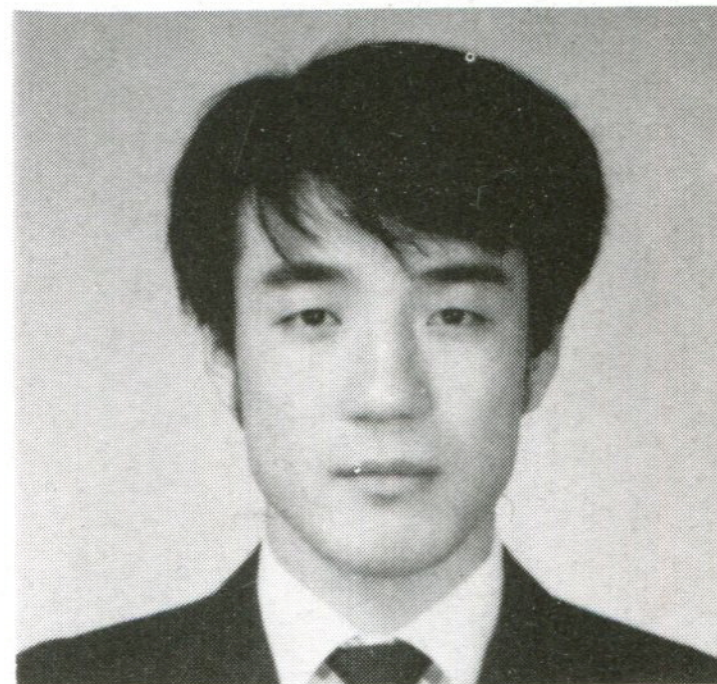
# STAFF



기획 • 신용우



조 명 • 김인환



무대감독 • 배성오



음향제작 • 정철



효과 • 장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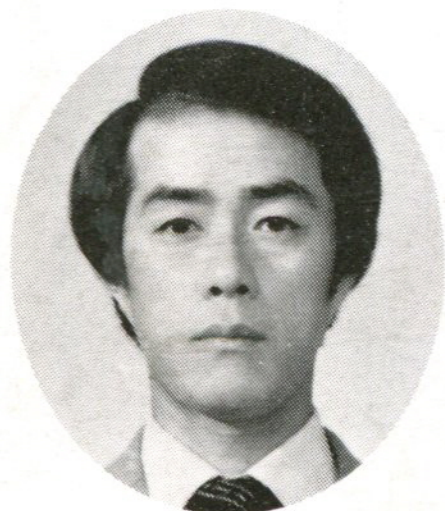
슬라이드 • 김경수

장 치 • 송길섭



太陽物産株式會社

釜山事務所



安 豊

- 태양물산(주) 부산사무소 과장대리
- ☎ 94 - 3345
- 부산청년회의소 회원

釜山大學校齒科大學

- 口腔外科學教室 -

助 教 授 金 兌 奎  
齒醫學博士

釜山市 西區峨峨洞 1 街10番地  
電 話 : 26 - 0171 ~ 9  
研究室 : (交) 568





김 동 준

《약력》

- 51년 부산생
-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
- 동아일보 사진동우회 회원
- 부산일보 사진동우회 회원
- 전국 영상 동인
- 진 사우회 운영위원
- 일본 니코트 클럽 회원

PHOTO  
JUN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양정 3 동353 - 6 (17/1)

전 화 866 - 8666

- |              |                  |
|--------------|------------------|
| • 상업사진       | • 포추레이트          |
| • 신문잡지광고     | • 패션모델 촬영        |
| • 특수촬영       | • B/W 암실 open 운영 |
| • 건축물 및 미술작품 | • VTR 촬영 및 편집    |
| 촬영           | • 사진세미나          |
| • 카다로그, 팜프렛  | • 행사스냅 촬영        |

각종 고급인쇄/사진식자/도안/사진제판/학교교재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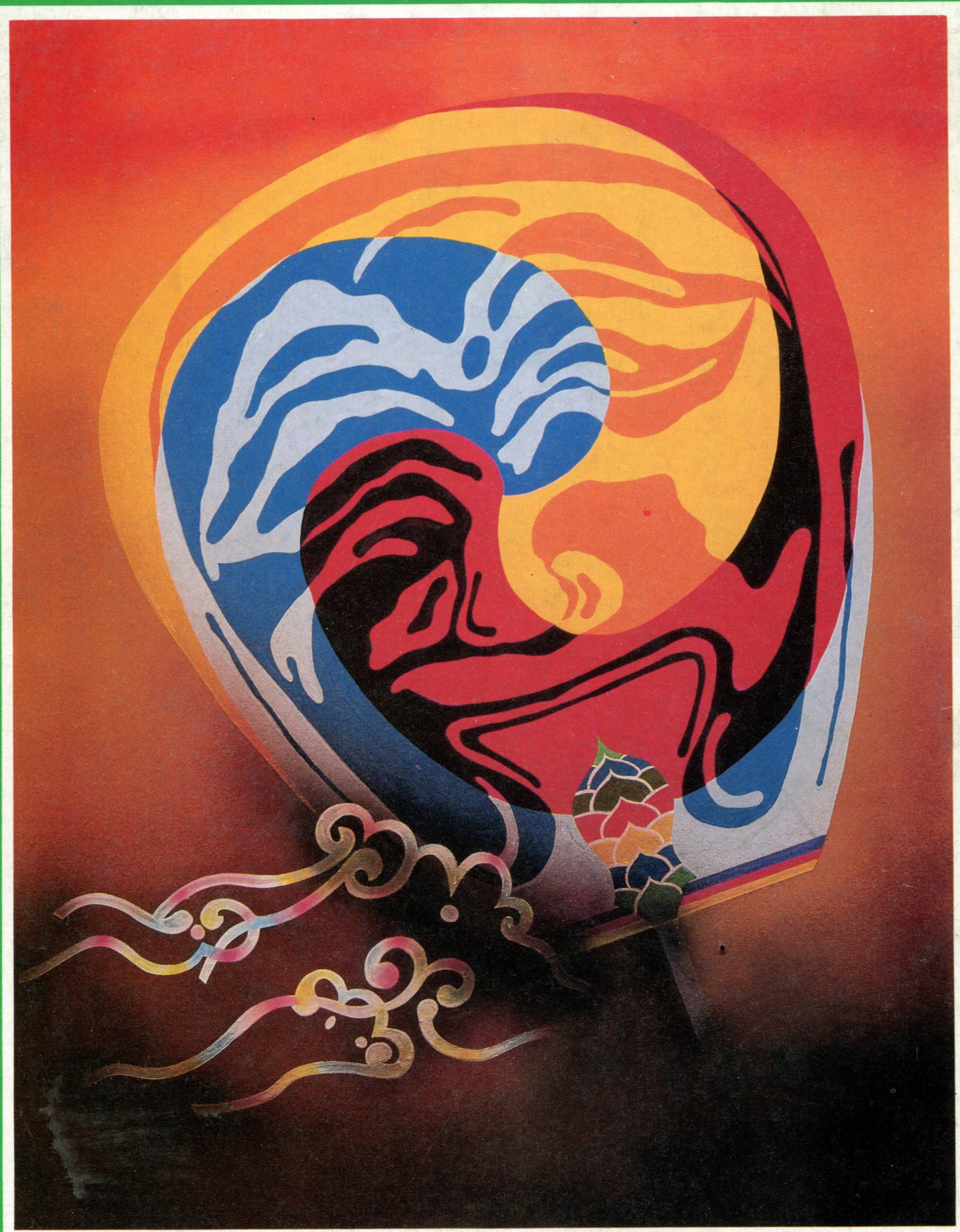
종합인쇄 제 일 사

부산시 중구 동광동 4가 20번지

☎ 462 - 7230 · 7270



# 제5회 전국지방연극제



전라북도  
연극협회전북지부



● 부 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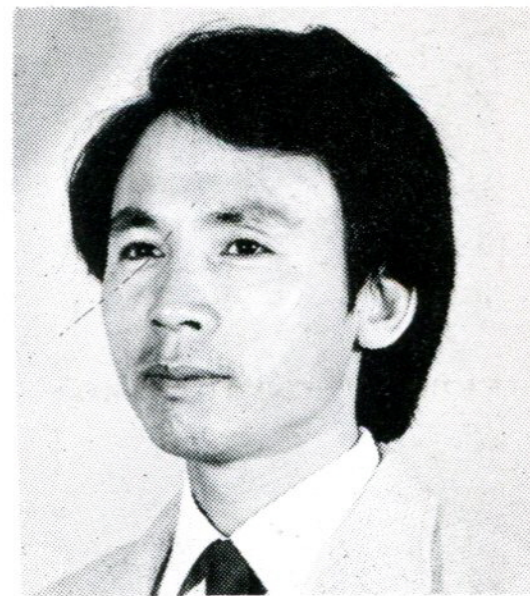
# 노인, 새되어 날다

신태범 / 작

예술극장



지부장 / 전 승 환



대표 / 이 영 식

● 공연 보 ●

○82. 9 창단공연 “닭 잡아 먹고 오리발”

김문홍·작 / 윤석·연출

○83. 12 10회공연 “춤추는 허수아비”

유보상·작 / 이영식·연출

○84. 6 12회공연 “용감한 사형수”

홀 워디홀·작 / 진대규·연출

○85. 3 15회공연 “처용아바”

김한영·작 / 이영식·연출

○86. 3 18회공연 “을숙도”

박원돈·작 / 이영식·연출

○87. 3 23회공연 “노인 새되어 날다”

신태범·작 / 김정화·연출



## 작품해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있다. 이곳에는 철새와 더불어 갈대밭을 일구어 농사짓고, 낙동강을 젖줄삼아 살아가는 정착민들이 있다. 권노인도 그중에 한 사람이다. 현대화의 물결은 하구언 공사라는 물리적인 세력을 몰고 와 이곳 주민들을 떠나게 만든다.

권노인은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한다. 하나, 둘, 주민들은 을숙도를 떠나고 권노인의 딸도 사상 공단으로 일자리를 찾아 가 출한다. 권노인의 의지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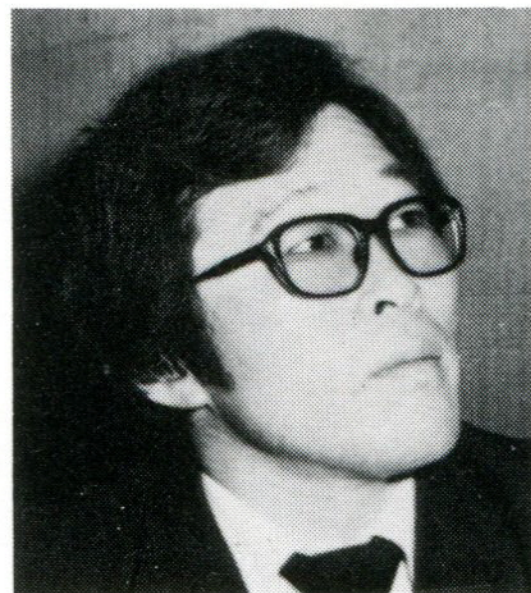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돌아온 그의 아들 내외에 의해 무참히 꺾인다. 그러나 권노인은 자신의 의지를 죽음으로 대변한다.

•을숙도의 주민들이 철거하기로 약속한 전날 권노인은 자신과 함께 살아온 철새들과 갈대숲과 영원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의 딸 옥이는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고 을숙도로 귀향하나 권노인의 시신은 찾을 수 없다. 주민들은 권노인의 영혼만이라도 남아 을숙도의 자연환경을 지켜 줄 것을 바라며 새로운 삶을 찾아 모두 떠난다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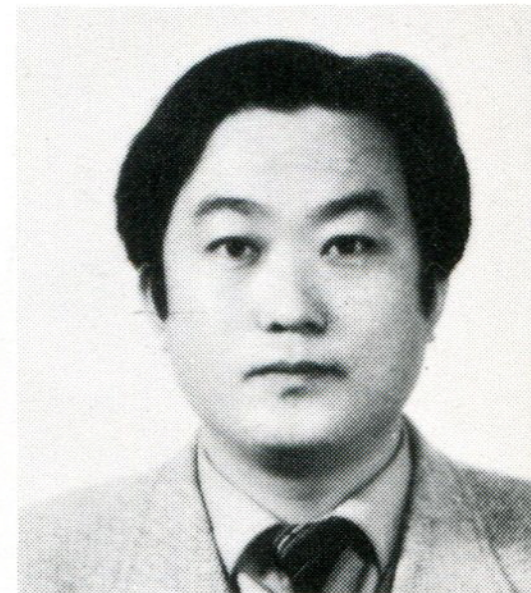


---

#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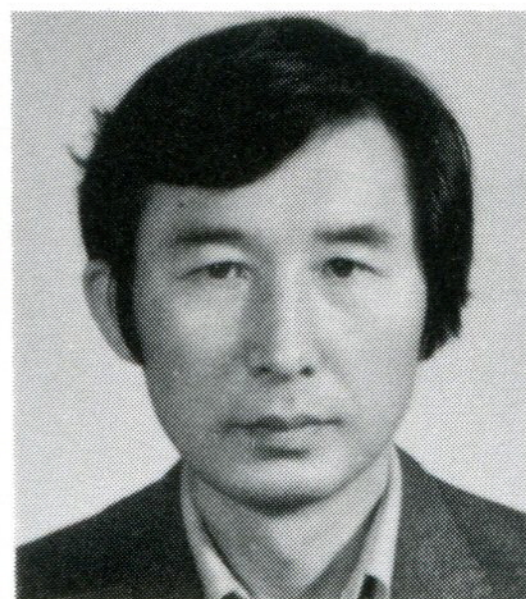
작가 / 신 태 범



연출 / 김 경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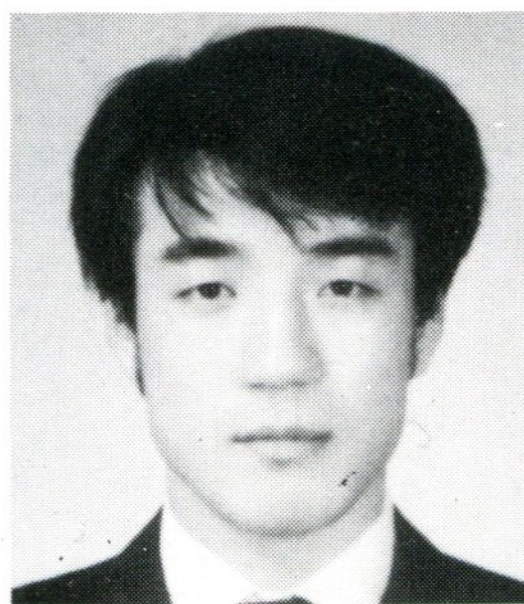
제작 / 이 우 길



조명 / 김 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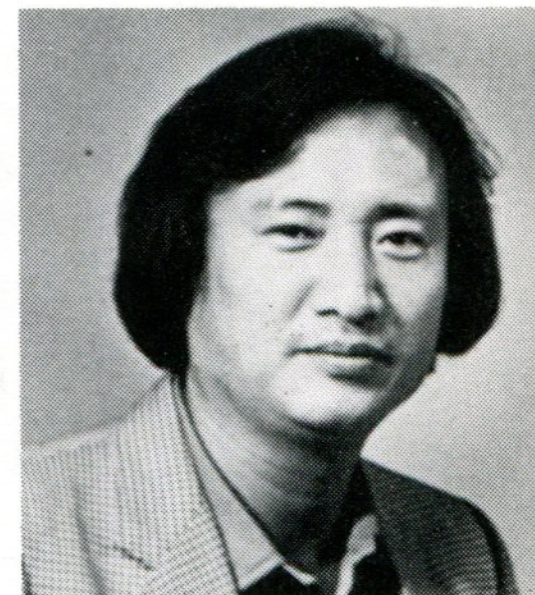
무대감독 / 이종근



효과 / 배 성 오



무대장치 / 이진우



기획 / 신 용 우



#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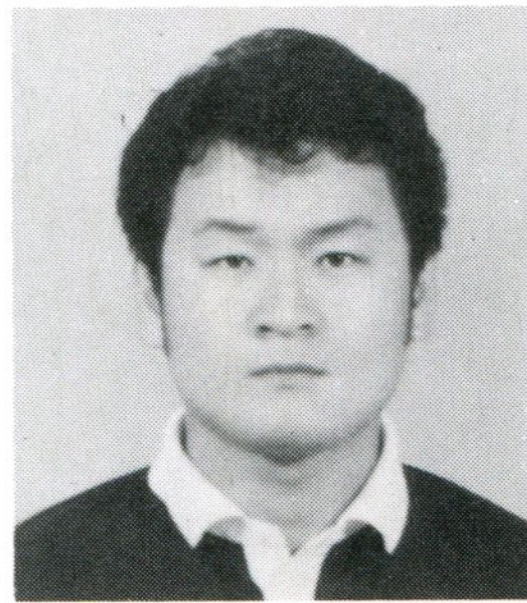
구포댁 / 정 행 심



봉섭 / 권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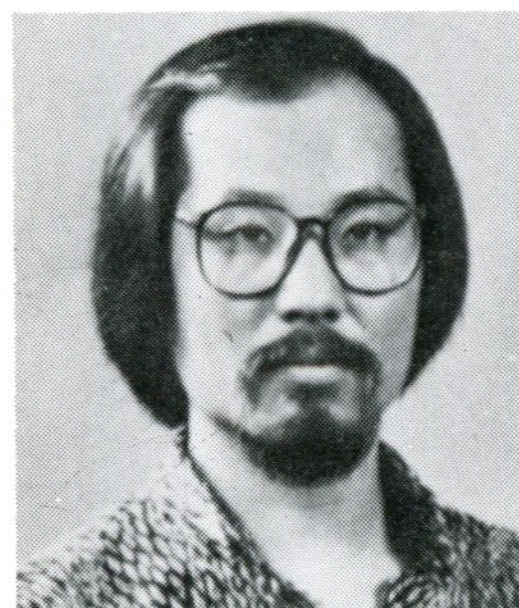
안노인 / 유 순



이장 / 고 인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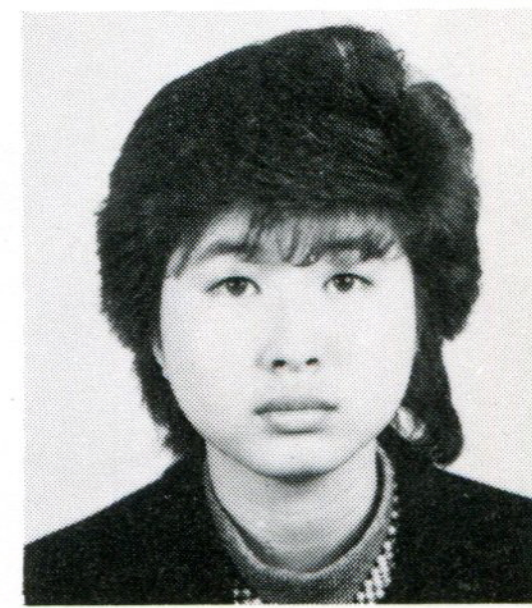
권노인 / 이 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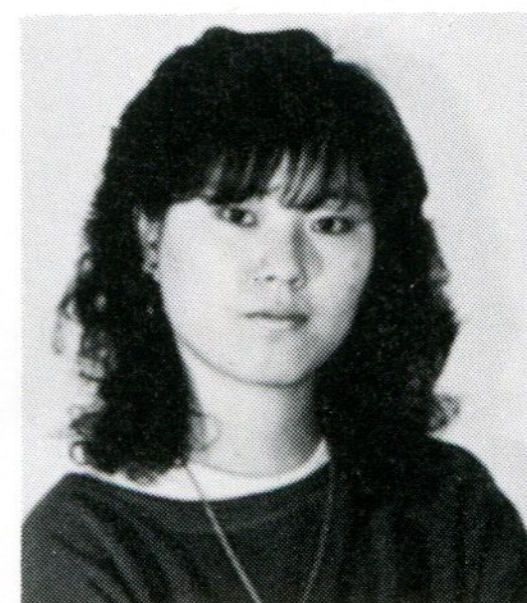
소장 / 김 상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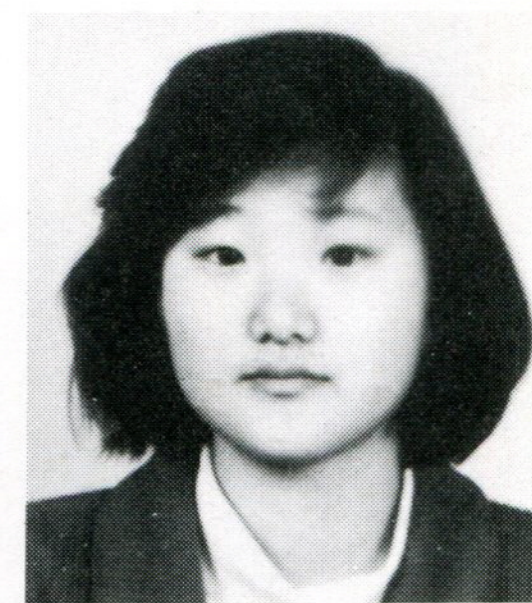
며느리 / 김 지 형



경아 / 정 동 숙



옥이 / 김 경 림



김해댁 / 이 혜 영